

- 녹음일시 : 2021. 2. 22.(월)
- 녹음장소 : 운중동
- 대 화 자 : 김만배, 정영학

(3:45~16:30)

김 만 배 인제 거의 (...) 돼가지고, 내 지분이 원래는 25%인데,

정 영 학 네.

김 만 배 내가 (...)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

정 영 학 네, 네.

김 만 배 응? 49%의 반. 그지? 24.5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그러면 지분 가지고 배당 나오는 게 총,

정 영 학 1,890개에다가요 1,500개 정도 됩니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 총 640개.

김 만 배 응. 1,390개?

정 영 학 네.

김 만 배 거기에,

화천+1호+2호+3호 상임주주

$$\frac{172,085,000}{349,995,000} = 49.16\%$$

$\swarrow \times 0.5$ $\searrow \times 0.5$
 24.58% 24.58%
 유동주 260217
 실권리분 실권리분

정영학 세금까지 1,390개.

김만배 세금 빼고. 우선은 세금 빼고. 1,390에 세금이 24%면,

정영학 24%입니다. 24%면, 76 곱하시면 됩니다. 76.
3390. 76. 2,576억.

김만배 2,576억. 그지? 그러면,

정영학 아 그런데 여기에 (...) 여기에 0.49를 해야 돼요. 0.

) 김만배 들어가는 거..

) 정영학 76. 예.

) 김만배 (...)

정영학 (...) 1,262억입니다.

김만배 1,262억. 거기에서 빼고,

정영학 예. 400억인데요.

김만배 400억인데, 세금..

정영학 형님, 이게 사실 (...)으로 나갔기 때문에 계산을 할려면..

김만배 내가 배당 받아오면 이것을 갚아야 돼.

정영학 갚으셔야 되니까. 정확히 계산을 해봤더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400억 배당 받을 것에 세금은, 올해 세율이 올랐습니다. 45로.

거기에 (...) 11% 세금입니다.

45에 11 하면 대충 34인데요. 주민세까지 34.4%입니다.

김 만 배 응. 38% 잡으면 돼.

정 영 학 그렇죠. 38%를 잡아야 되고요.
400억이 될려면 38% 세금을 뺐을 때 400억이 될려면요,

김 만 배 응.

) 정 영 학 0.38 해가지고 400억. 0.62 400 나누기 0.26 645억입니다.

) 김 만 배 650억 하고.

) 정 영 학 645억. 실제 645억. 650억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사실 공통비는 650억을 빼야 맞죠.

) 김 만 배 그렇지. 650억을 여기서 빼야지.

정 영 학 맞죠.

김 만 배 빼봐.

정 영 학 그 다음에,

김 만 배 그 다음에,

) 정 영 학 60개.

)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직원들 70개.

→ 70억 : 유동규 지분 24.5% 2828억씩 공분배 708억

김 만 배 70개. 그런데 요거는 인제 세금을 안 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한번 빼면 저기한 거니까.

정 영 학 이거는 직원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요건 세금 빼면 안되죠.
이것도 직원들 실어주면,

김 만 배 받아가면..

정 영 학 비용으로 인정이 되니까 그거는.. 예. 요거는 안되고.
1,262 (...) 마이너스 70 하면, 482억.

김 만 배 거기에서 10억을 빼면 472억. (...)

정 영 학 이거를 (...)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런데 482억에서,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이거는 동규가 가져갈 때 그때 하는 거지.

정 영 학 아 그러고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262억에서 650개를 빼고요.

김 만 배 1,262억에서 650개를 빼고.

정 영 학 612억이죠. 이걸 나누기 2를 해야 되는거죠. (...)

김 만 배 아니 아니야. 이게..

정 영 학 전체 1,262억 세후에 반이 세금 이렇게 남은 게 1,262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 공통비 빼면 612억. 이걸 반 나누면요, 612 나누기 2. 이게 306억입니다.

김 만 배 306억에서 140억을 빼봐.

정 영 학 306억에서 140억을 빼면, 166억.
현재까지 나온 배당 중에서는 166억입니다.

김 만 배 그러면 인제 다음, 요번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은,

정 영 학 이번에 700억이 나올 거고요.

김 만 배 그거 다 해봐, 전체로. 내년에 나올 것까지.
내년에는 어떻게..

정 영 학 4800 마이너스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거기서 받아갑니다. 그때는.

김 만 배 (...) 25%를 하다가, 내년에 받아갈 것까지 총 해서 금액을..

정 영 학 네.

김 만 배 이거는 올해 (...)거고.

정 영 학 여기까지 인제 지금까지 받은 것 그냥 나눠보시면 되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그다음에, 나중에 내년에 받아갈 것. 700억이면..

김 만 배 내년에 700억이 나오는 거야?

정 영 학 예. 내년에 700억. 올해 700억 예상해요.

김 만 배 내년에는?

정 영 학 내년에도 한 700억 예상합니다.

김 만 배 내년에?

정 영 학 3390. 0790. 0790. 4,800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김 만 배 그러면 4,800억으로 전체를 계산해서 금액을 나한테 줘.
왜 그러냐면 지분 22%를.. 5%를,

정 영 학 정해줄려면 몇 % 정해주셔야 되는지 금액을 뽑아봐야 됩니다.

김 만 배 그렇지. 25%를 하니까, 25%를 그런데 주식을 보면 애네들이 세금을 부과한
대. 주식으로 한번 있고, 또 세금으로 배당 때려줄 거고.
그러니까 그냥 25%를 개네 몫으로 해서 비용을 그렇게 정해서 돈으로 합의
를 하면 돈을, 돈에 대해서 받는 것만 22%만 받고도 세금 내는 것이다.
맞나?

정영학 예. 이거 166억이죠?

김만배 응.

정영학 요게 710억 정도 됩니다. 1,410억이 남아요. 이걸.

김만배 아니면 이렇게 해봐.
3,800억에서 총. 아니, 4,800억에서. 4,800억에서.

정영학 (..)

김만배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정영학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4,800억에서,

김만배 응. 40 곱하기

정영학 0.49 2,352억입니다. 여기에 2,352에다가 세금 0.76

김만배 애네들 현재까지는 받아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

정영학 매우 적습니다. 형님 요것만. 요거 요거..

김만배 최대한 나와봤자 25%만,

정영학 쪼으면 되죠.

김만배 350억의 반이면 쪼으면 170억. 그지?

정영학 세후로 주셔야 됩니다.

김만배 그래.

정영학 1,787억.

김만배 응,응.

정영학 여기에서 아까 그 650억을 빼야죠.

김만배 응,응.

정영학 여기 650억. 40 (...) 그러면 1,138억입니다.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요, 반반씩 하셔야 되니까. 568입니다.
여기에서,

김만배 12?

정영학 예. 예.

김만배 그러면,

정영학 438입니다.

김만배 438?

정영학 예.

김만배 거기에서 10을 또 빼야지. (...)

정영학 예. 그러면 428.

김만배 최종 428이네.

정영학 예.

→ 10억: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전달한 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연5%씩)에

김 만 배 지네들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

정 영 학 개네들이 세금 내야죠.

김 만 배 내야지.
니네 대장 (...) 하면 내가 낼게.

정 영 학 형님, 이 정도면.. 아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비용이거든요.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이것도 맞는 거고. 이것도 맞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는 그냥 요거 주시면 되고. 지금까지 온 거 중에.

김 만 배 지금까지 온 거는,

정 영 학 166억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70에서, 이걸 뺄게 없으시지 않습니까.
0.49에, 0.76에 나누기 2.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떼고 주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세금 떼고.

김 만 배 그러면 요거는 얼마야? 세금 다 떼면.

정 영 학 아. 세금 떼었습니다, 요거는.

김 만 배 그럼 얼마야?

정 영 학 132억입니다.

김 만 배 응.

정영학 710억에다가 0.49에다가 나누기 (...) 132억. 그러면 요겁니다.

김만배 이게 올 3월까지지?

정영학 예.

김만배 그러면 이게 요 부분 합치면 200..

정영학 이것도 마찬가지로 132억 정도 돼야 돼요.
그런데 지네가 세금 냈다고 가정하고.

김만배 응, 응.

정영학 132. 132.

김만배 아니, 우리가 내서 줘야지. 우리가 만약에 하면 내서 줘야지.

정영학 아, 이건요?

김만배 응.

정영학 소송을 가면 내년에는 배당이 저리로 갑니다.

김만배 아니, 금액으로 타게 해야 돼. 그거는. 주식으로 안하고.

정영학 금액으로 해줘도 되는 겁니까?

김만배 응. 금액으로. 조정으로 해가지고.

정영학 이걸 세금 내고 주셔야 돼요. 132억 똑같습니다.

김 만 배 이거하고 똑같애?

정 영 학 예, 132에서.

김 만 배 700억에 대해서 25%, 0.25 곱하기

정 영 학 이게 132억이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700, 2.76, 이게 30억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김 만 배 아, 왜 이거가 770..

정 영 학 10억이 적습니다, 10억이 적고요, 그러면 166, 132, 130, 420..
요거 세 개가 428입니다, 요거 428억 맞죠? (...)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예.

김 만 배 요건, 요거 두 개 합친 거는 요거?

정 영 학 132 100 298

김 만 배 그 새끼 미리 가져가면 지 손해야, 그지?

정 영 학 엄청 손해죠.

김 만 배 (...) 남욱이가 개네들 이제 50억 (...)

정 영 학 이게 전혀 형님하고 (...)

(37:25~40:50)

정영학 저는 가급적 정리하려고..

김만배 그래서 내가 '너 알미워서 3월달에 배당 안할라고 그랬는데. 너, 재창이도 그렇고'

정영학 예..

김만배 배당도 안할라고 그랬어. (...) 응? 어찌됐든. 아니 그리고,

정영학 예. 형님,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릅니다.

김만배 그럼!

정영학 솔직히 주총 결의가 나면 바로 배당해야 됩니다.

김만배 응?

정영학 바로 배당해야 됩니다. 회사에 있는 거 하고 이쪽으로 오는 거 하고 천지 차이예요.

김만배 그럼.

정영학 20일 사이에 뭘 일이 어떻게 뭐가 벌어질 줄 압니까.

김만배 그런데 성문이는 왜 그걸 가지고서 나와?

정영학 하여튼 빨리 하라 하겠습니다.

김 만 배 그래, 빨리 빨리해 그냥.

정 영 학 예. 세상 일이 몰라요.

김 만 배 그리고 회사에 돈이 없는 거와 있는 거가..

정 영 학 아유, 형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김 만 배 그럼.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배당이 안되면 또 배임이라고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정 영 학 아유, 최대한 빨리 해야죠.

김 만 배 그래.

정 영 학 작년에 3월 첫주에 했거든요.

김 만 배 응.

정 영 학 이번에는 3월 말에 가서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이 뭐가 바뀌었냐. 그랬더니, 좀 늦게 한다 하더라고요.

김 만 배 내가 내일.. 오늘 전화해 볼까? 내일 이사회.

정 영 학 예. 3월초에 첫째주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주총 하고 바로 내줘라.

김 만 배 그렇지.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거는 안돼.

정 영 학 형님.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형님이 뭐..
한달 동안 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 만 배 그래 그래 그래.

정 영 학 갈라설지.. 회사에..

김 만 배 (..)

정 영 학 (..) 재창이는 이번에 한 10억만 주고요.

김 만 배 응,응.

정 영 학 (..)까요?

김 만 배 재창이 꺼를 우리가 요구하면, 배당 받으면 우리꺼다 해서 그렇게 해.

정 영 학 그러면 이번에 재창이 줄까요?

김 만 배 한꺼번에 줄라고? 뭘 한꺼번에 주냐?

정 영 학 잘 알겠습니다.

김 만 배 내가 모레 형이 니 돈 50억 하고 (..) 줄게. (..) 이자 10억하고 (..)

정 영 학 50억 플러스 이자 주시면 됩니다.

(1:04:16~1:05:40)

김 만 배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남옥이랑 모여서 (..) 정민용이한테 너 누구한테 했냐. 유동규한테 했냐, (..)

45자 28
173자 8
183자 1

정영학은 정영학 명예 회장
정영학이 명예 회장

19 1
2021-5-22

이기성이가 들어서 (...)한테 보고한 거야.

(...) 유동규랑 이기성이 (...)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 밝히겠다. 응?

난 판결문이 그런지는 몰랐는데 (...)

그래서 그랬어. (너) (나) 유동규가 주범이야. 정영학이는 우리한테 합의한 것을 쓴 것뿐이 없어. 쓰고 넘겨주고. 응? (너)하고 유동규하고 남옥이 주범이지, 새끼야. 니가 주범이지. 응?

그랬더니, 아이 뭐, 영학이 형이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래.

‘너는 공범이 아니고 (...) 중범이지 새끼야. 응? 내가 뭘 범죄를 뭘 저질렀는데?’ 그랬지. 하여튼간 (...) 이건 똑같은 얘기야. 옛날에 하던 얘기 똑같은 얘기. 그래서 더 이상 안해. (...)

(1:13:40~1:14:56)

김 만 배 성문이 견제해야지, 이거 씨발. 응? 응? 완범이 혼내야지.

정 영 학 달래서, 달래서 해야죠. 혼내든지 달래든지.

김 만 배 응. 성문이 말해도 안 들어. 아 난 고집 그렇게 센놈 처음 봤어.

정 영 학 예..

김 만 배 내가 처음에 그랬거든. ‘너(이성문) HMG한테 왜 위약금을 안 받니?’

‘친해서 안 받았습시다. 관계 나빠질까봐’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이게 세상이 내적 조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 응? 응? 대표이사가 된 자가. 응? 응? 근데 돈 빌려온 거 이자는 좇나게 많이 주면서. 응?’

야, (니) 처남도 이 새끼야 48억을 줬다. 15억 빌려서. 응?

그리고 저 누구야, (정) 누구. 응? 개도 거의 100% 넘게 주고, 또 PM(용역)으로 30억 주고’

정 영 학 예..

정영학 [진양권선 대위]

김 만 배 ‘고리해도 이런 고리 없다’ 내가 그랬어. 응?

정 영 학 예..

김 만 배 ‘그리고 내가 돈 쓴 걸 봤니? 니 통장으로 받아 와서 내가 몇 번 받아 갔
니? 그게 다 없어졌으면은.. 응?’ (끝)